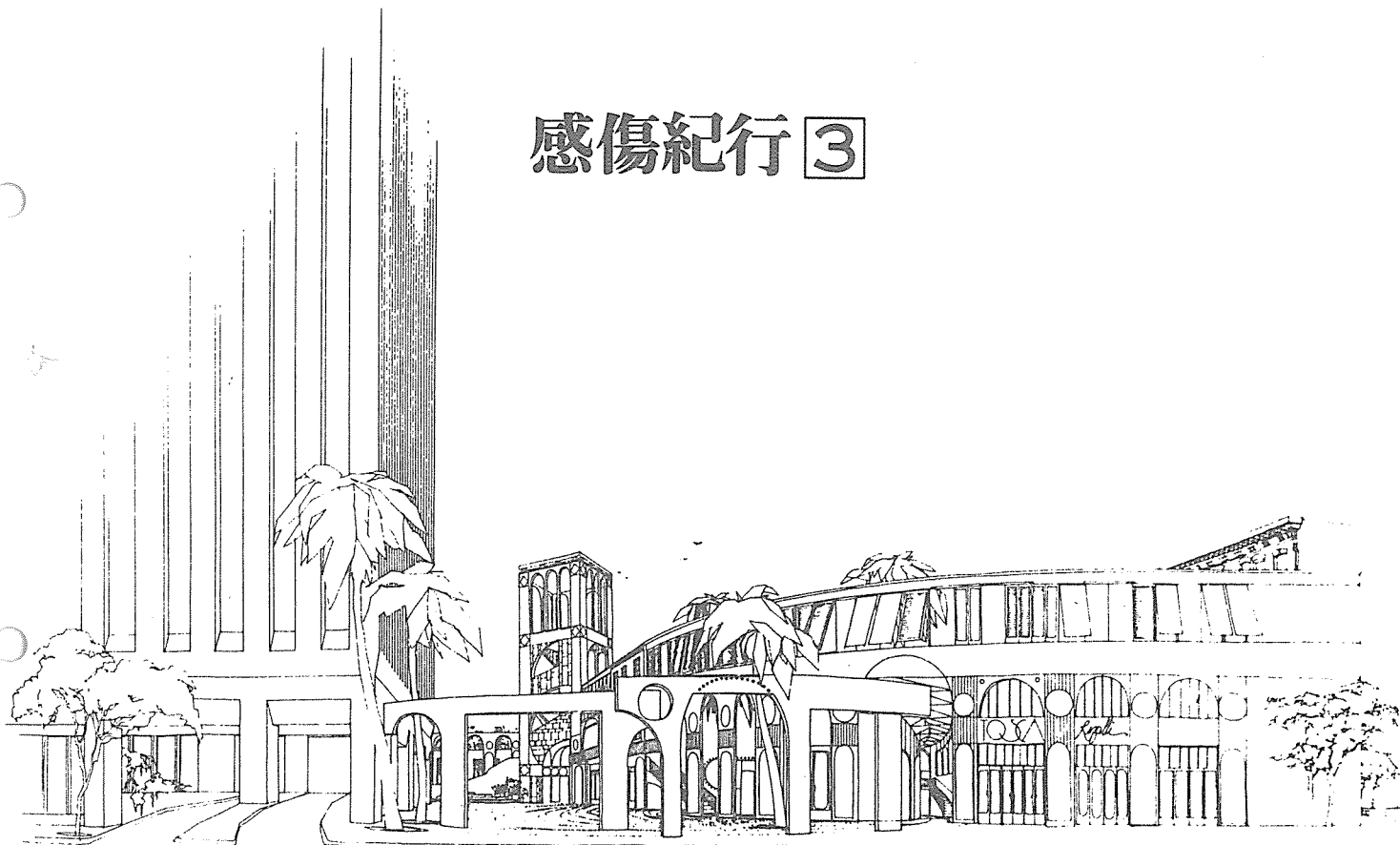


# 感傷紀行 ③



金 錫 澈

종합건축사사무소 아키반

## '85. 5. 24 리데뱅크

리데뱅크는 새로운 도시의 신선한 한국면을 실현하고 있다. 그러나 역시 잠시동안 이루어진 도시다운 실수와 흥분과 과장이 있다. 현대건축이 추구해온 인간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옛 도시의 필연이었던 사실의 많은 부분이 생략되어 있다. 많은 사람의 실질적 참여보다 몇몇 전문가가 만든 가설무대 같은 도시다. 여러 다른 레벨의 구성, 자동차와 보행자의 입체적분리, 건축공간의 도시공간과의 접속, 일조와 바람과 사람의 흐름이 고려된 건물군의 배치와 넓은 녹지공간의 확보등 오래된 도시들이 갖지 못한 것은 갖추고 있지만 정작 옛도시들이 갖는 도시형식의 의미중 상당부분이 잊혀지고 있는것 같다. 도시가 사람들에게 무엇을 뜻하는지를 다시 생각한다. 도시계획이 건축을 공부한 사람들의 차지가 되고, 도시에서 계획이라는 개념이 현실로 나타나면서 많은 사실들이 왜곡되고 있다. 상징형식 대신 기능개념이 우선하고 개연성 대신 윤곽속의 자유형

식만 강조된다. 제한된 상상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너무 큰 일이 맡겨지고 있다. 그러나 역시 부지런하지만 상상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만든 강남에 사는 우리에게는 긍정적인 새로움의 장소다. 강남을 생각하면 언제나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고 증오와 환멸의 느낌이 덧친다. 중심업무및 상업시설군 주위의 아파트군은 다양한 것도 아니고 일관성이 있는 것도 아닌 약간 어정쩡한 구성인데 멀리서 볼 때 신기하였던 원통형 아파트군은 가서 보니 역시 도형적 구성에 끝난 입면유희의는 별것이 없다. 목소리는 크고 말은 많은데 알맹이가 없는 건축군이다. 토지의 입체구성을 상징하는 지하차도와 주차장의 어둡고 소리나는 공간들의 아이러니를 어떻게 생각해야할까.

## '85. 5. 25 배리 대학도시

거대한 숲속 공원속에 외국인학생을 위한 기숙사촌이있다. 국가가 무료로 외국학생을 공부시키는 프랑스인들의 자부심도 대단하지만 언뜻 눈에 드는 기숙사

촌의 분위기가 감탄스럽다. 르 꼬르뷔제의 스위스 학생관과 브라질 학생관을 보았다. 건축공부의 시작부터 압도되었던 꼬르뷔제의 작품을 보게되었다. 하바드의 카펜터센터이후 처음 다시 그의 작품을 본다. 숲속에 문득 나타난 스위스학생관은 우선 아름답다. 이십여년전 사진에서 보던 선언적 분위기보다는 오래된 아름다움이 느껴진다. 벨로티위 정면창의 조화로운 강함은 옥상의 터진 벽과 벨로티의 강인한 디딤과 아름다운 비례를 이룬다. 벨로티 밑을지나 낮고 넓게 펼쳐진 지층과 계단탑으로의 내부공간 전개는 꼬르뷔제적 공간의 유연한 흐름과 변조를 과시한다. 뒷측 지층부의 경사진 돌담과 계단실 그리고 복도 뒷벽 벽면의 겹침은 그러나 좀 혼란스럽다. 과격이 영켜 의도는 알겠는데 억지스럽다. 당계씨의 대학원 졸업설계가 이 건물의 모방이었고 특히 이 뒷면에 강한 영향을 받고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웃는다. 그러나 자유스러운 지층부, 벨로티에 의해 새롭게 창출된 토지, 명목공간과 이를

뽕뎨블루성을 향해 시속 160km로 고속도로를 질주한다. 끝없이 펼쳐지는 밀밭과 수평선상의 곳곳에 설킨 숲들이 아름답다. 권력주변에 모이는 자연스러운 부의 속성처럼 왕과 부자들의 성채가 그림처럼 모여 있다. 마침 점심시간이어서 전형적인 불란서 식당을 찾았다. 350년 되었다는 3층 고옥이다. 조적조의 3층 건물이다. 주방이 따로 떨어져 있지않아 식당안까지 요리 냄새가 넘친다. 선생님 같은 맑게 생긴 마담이 주문을 받는다.

받치고 있는 두 공간인 퍼블릭 스페이스와 서비스 스페이스의 자연스러운 분계, 옥상정원에 의해 매듭된 다층구조의 새로운 형식들은 한 세기를 지배한 건축가의 데뷔작다운 절제된 언명이 있다. 브라질 학생관은 김종업선생이 관여하였다 하여 자세히 알고있는것으로 알았는데 정작 당도하여 느끼는 기분은 많이 다르다. 역시 서있는 장소의 의미를 모르고서는 시작될 수 없는 건축의 식물적 입장에 대한 새로운 확인과 현대건축에서 천재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 하여야하나 하는 다른 질문을 생각한다. 접근로 측에서 양측 계단실과 휴게실 엘리베이터 홀의 벽면구성과 경사 돌출된 지층부의 돌벽은 마드리드에서 자주보던 아파트의 화사드를 상기케한다. 계단실이 암시되어 있는 빨로티 밀을 우회하며 고속도로 측을 지층부의 유리벽이 둥글게 막아있고 공간구성상 필연성은없지만 삼각면으로 도서실이 이어진다. 시각적 접근형식의 교묘한 구성이다. 지층부의 경사진 노출 콘크리트 천정은 바깥 정경과 입구 홀과 곡선으로 감싸진 중정과 계단홀 사이의 유기적 연계를 시도한 것 같다. 엘리베이터 홀의 영롱한 밝음과 복도의 어두움은 묘한 대조를 보인다. 우리가 일상 생각하고 쉽게 반복하는 일들도 그에게는 새로운 도전이 되는 모양이다. 그는 우리 생활의 틀 만이 아니라 틀 속의 감수성에까지 그의 영향을 행사하고 싶어한다. 그는 봉사자로서의 전문가가 아니라 우리가 있고 살던 일상에 새로운 삶의 계기를 시도하는 듯 하다. 어제 몽마르뜨의 아돌프 루스의 멘션에서 느끼던 이벤트 메이커인 천재들의 언명과 그들의 방식에 감동을 느낀다. 그들의 자의식은 관객에게 보다 역사에 깊이 관련되어있어보인다. 한 가지 의아스러운

것은 잘 관리되지 않은 현대건축은 관리되지 못한 옛 건물에 비해 더 쉽게 마멸되어 간다는 사실이다. 옛 건물이 되어가는 현대건축이 과거의 유적으로 살아 남기 위해서는 새로운 이론이 시작되어야 할것이다.

### '85. 5. 25 뽕뎨블루

뽕뎨블루성을 향해 시속 160km로 고속도로를 질주한다. 끝없이 펼쳐지는 밀밭과 수평선상의 곳곳에 설킨 숲들이 아름답다. 권력주변에 모이는 자연스러운 부의 속성처럼 왕과 부자들의 성채가 그림처럼 모여있다. 마침 점심시간이어서 전형적인 불란서 식당을 찾았다. 350년 되었다는 3층 고옥이다. 조적조의 3층 건물이다. 주방이 따로 떨어져 있지않아 식당안까지 요리 냄새가 넘친다. 선생님 같은 맑게 생긴 마담이 주문을 받는다. 달팽이, 소간, 송아지고기 등 익숙하지 않던 음식들을 맛있게 먹는다. 성의 모든 곳은 다 특유의 격식을 가진 건축형식으로 이루어져있다. 방들도 구성형식이 다르다. 모든 것이 같은 형식을 가지는 현대건축과 전형적으로 다른 옛 고성을 구경하는 기분은 두 시간전 르 꼬르뷔제를 보고난 후라 미묘하다. 건축의 유적들은 역사속을 다니는 듯한 느낌을 준다. 이 공간들의 많은 작위는 건축가나 참여한 사람들의 작가적 의지에 보다 당대의 가치관, 습관, 격식에 근본적으로 구속되어있다. 이것을 지은 사람들은 매우 작은 역할을 수행할 뿐이다. 스위스학생관이나 브라질학생관에서 르 꼬르뷔제는 마치 자기가 그 시대의 의지인것처럼 그린다. 현대건축가에게 주어진 역할은 건물을 짓는데 있어서 마치 제왕같은 것이다. 일개 전문가에 불과한 대부분의 건축가들에게 현대건축이 맡겨진것

이 오늘 도시의 정처 없음을 만든것이다. 당시의 건축가는 당대를 지배하던 건축양식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브르봉왕가 특유의 궁전형식을 따라 주위의 경관과 당시의 여러 형편을 포괄하여 뽕뎨블루 숲속에 이 성을 지은것이다. 주위의 마을, 오래된 조적조 목조 고옥의 엄정한 문법은 우리를 숙연케한다. 과다하게 주어진 자유에 의해 현대건축은 황폐하였다. 단지 몇 위대한 자들과 겸손한 자들에 의해 현대건축은 과거의 건축과 같은 인간관적의 뜻을 지닌다. 르 꼬르뷔제의 천재는 오늘날 우리에게 건축이 무엇인지를 육십년전에 말하게 하였으나 아직 우리는 「새로운 건축을 향하여」라는 그의 언명을 이해치 못하고 있는 듯 하다. 근처 장곡토의 성당으로 간다. 돌로지은 열댓평남짓한 작은 성당이다. 가운데 장곡토의 무덤이 있고 내부벽은 그의 그림으로 사방벽이 되어있다. 네 벽의 덧벽이 인상적이고 성단 측으로 돌출된 부분이 덧 벽이 커진 부분 같다. 작으나 튼튼하다. 마당에 약초들을 키우고있다. 작고 아담한 전형적인 프랑스의 마을이다. 나무로 만든 아치터널이 아름답다. 오백년된 목조 장터가 아직 쓰이고있다. 근처의 바르비종은 밀레, 루소등 바르비종파의 화가들이 살던 마을이다. 산소냄새 나는 마을이다. 숲과 하늘과 맑은 대기가 사람을 청정하게한다. 마을 뒷길에 더 맑고 아늑하다. 바르비종의 화가들의 가난하지만 맑고 부지런한 노력들이 눈에 보이는 듯 하다. 예술을 하는 사람들 중에 이들과 같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감개가있다.

### '85. 5. 26 한국 현대미술전과 르노알전

그랑팔레에서 '한국 현대 미술전' 이

테이트 갤러리에 마침 ‘프란시스 베이컨 전’이 열리고 있었다. 르노알 경우도 그랬듯이 이렇게 평생의 작업을 한곳에 모아보게 되니 이 작가의 많은 것을 알게 된다. 처음 뽕뽕두에서 충격적으로 보았던 작품도 전시되어 있다. 작가의 경우 독창성의 시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본질적인가를 실감한다.

있다해서 런던으로 떠나야 할 북새통에 간신히 시간을 마련했다. 우선 번번히 기회가 없었던 유리지붕의 건물내부가 가보게 되는 기대도 있었지만 우리 현대 미술을 외국에서 볼 수 있는 장면이어서 관심이 있었는데 한마디로 창피하고 비참한 기분이었다. 예술적 가치의 한 속성이 때와 장소를 떠나서도 성립하는 것 일텐데 우리의 작가들은 자기의 장소 자기의 시대를 지나면 이렇게 초라해지는 것인지.

전형적인 개발도상국 미술전이다. 시작한지 꽤 되었다는데 늙은 할머니들 몇몇이 기웃거리는 외에 이 넓고 환한 주철제 천창아래 휘장을 친 가설 전시장은 마치 무슨 학예회 전람회 같다. 당대의 우리작가들을 멀리 이렇게 한곳에 모시고 보는 착잡한 느낌은 뒤 르노알 전시장 입구에서 만난 아는 여자분들 말씀들 마따나 ‘창피해요’다. 지난 겨울 뉴욕근대미술관에서 열렸던 ‘원시상태인 나라들의 미술이 현대미술에 끼친 영향’ 전시회에서 받은 충격대신 여기서 우리들 대가들의 선진취향과 저질스러운 예술지상주의의 부끄러운 모습은 얼마나 대조적인가. 다행히 그중에 서넛 우리를 안심시키는 작가가 없는 것은 아니나 대개의 천편일률적인 사이버 실험과 구태의연한 이발소그림들은 차라리 없었던 것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랑팔레의 다른 전시장에는 ‘르노알 전’이 열리고 있었다. 여기는 줄이 길게 서있다. 눈에 매우 익은 그림들이었으나 역시 한 작가의 평생작품을 모두 모아놓고보는 감동은 대단하다. 이뿐되지 여자를 빛의 한가운데서의 아름다움으로 그려 온 작가로만 쉽게 알아온 상식을 뒤엎는 천재를 본다. 동시대의 작가중 고갱이나 세잔느등에 비해 편안하고 쉽

게 생각한 작가였으나 정작 당도한 느낌은 앙리·루소를 메트로폴리탄에서 처음 보았을때의 느낌처럼 대단한 감동이었다. 후기 인상파의 작가중 비교적 색채가 열은 것으로 이해한것은 그의 그림이 주는 편안한 느낌 때문이었을것이다. 고흐 박물관에서 느끼던 그림으로서인 약간의 실망 대신 여기는 그 인간에 보다 그림 그것에 압도된다. 르노알은 그림을 통해서 자신을 말하지 않는다. 빛에 비쳐진 사건의 아름다움을 그림으로 남겼다. 그의 그림은 그림이다. 그것은 어느 다른 사실의 회화적 표현이 아니나 그림 그 자체인 것이다. 모든것을 포함한 진실의 아름다움, 존재하였던 일들의 순간을 그는 그 정수에 속하는 바의 것은 물론 모든 주위의 것을 평면에 이루어 내었다. 그랑팔레 뒷 마당 잔디에 치친 발을 위해 양말을 벗고 편안히 앉아 상젤리제를 지나는 관광객들을 바라보면서 갑자기 그림을 그리고싶은 충동을 느낀다.

밤늦게 런던에 도착해 호텔에 대충 짐을 풀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중국 집인 ‘마오초’의 집으로 향했다. 그리 크지는 않으나 정통적 벽의 실내장식이 훌륭하다. 전면 유리창을 이층까지 띄우고 양측 반원통을 세운사이로 나선계단이 오른다. 이층으로 향할 사람이 아랫층에서 방해되지 않게하고 안측과 길이 서로 다치지 않게 온실같이 유리벽을 처리하였다. 안측은 깊이가 깊지 않아 오히려 보통 천정 부분과 보울트로된 부분을 구획시키고 보통부분 양측과 보울트 부분 뒤측을 거울로 처리하여 식당 특유의 사람들속의 한 장소다운 느낌을 시도한다. 비례도 훌륭하고 구석구석의 디테일도 적절하여 좁은 곳에서 넓음속의 안정같은 분위기가 겹쳐 시끌시끌한 소리 속에 무얼 먹음직하다. 나선계단측의 큰

테이블의 다섯 테이블 뿐이지만 실내장식의 효과로해서 크고 고급인 식당나름의 독특한 분위기다. 음식이 훌륭하다. 주방이 일부 트여있어 음식 만드는 소리가 울린다. 중국음식 담지않게 가라앉은 맛이있다. 이곳저곳에서 중국음식을 먹어보았지만 이런 특유의 맛같은 또 처음이다. 런던의 첫 밤은 이렇게 기분 좋게 시작 되었다.

### ’85. 5. 26 테이트 갤러리

테이트 갤러리에 마침 ‘프란시스 베이컨 전’이 열리고 있었다. 르노알 경우도 그랬듯이 이렇게 평생의 작업을 한곳에 모아보게 되니 이 작가의 많은 것을 알게 된다. 처음 뽕뽕두에서 충격적으로 보았던 작품도 전시되어있다. 작가의 경우 독창성의 시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본질적인가를 실감한다. 그 혼하고 혼한 실험들 부스르기 사이에 오랜 미술사의 한 빛나는 연속이 여기 실현되고있다. ‘사물이 지나간 흔적’들 같은 그의 작품은 전혀 새로운 것으로서의 충격과 우리의 시선위에 침전되어 있던 미술본래인 것에 대한 의지를 그려낸다. 40년에 걸친 작업의 전시는 천체란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 길을 가는 자들인지를 느끼게한다. 그들은 우리의 시선 넘어에서 일한다. 어떠한 보상도 그들에게는 무의미한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사실인것을 만들고저 하는것이다. 그들에게 보여진 세계가 더욱 진실이고 클수록 그들은 더 힘들고 외로울 것이다. 베이컨은 사물과 인간의 순간속에 비친 장면을 자신의 상형문자로 말하고 있다.

### ’85. 5. 27 서레이

런던에서 기차로 40분쯤 되는 거리의 마을 서레이로 간다. 빅토리아역에서 기

툼 매카서를 만난다. 잠시만이었던것 같은데 벌써 석달이다. 도면을 보고 여러가지 이야기를 한다. 거의 완벽하리라고 생각하였는데 문제가 아직 또 있다. 스테이지 도아의 위치와 기능, 소극장의 장치 반입, 조명 형식등에 아직 허술한 구석이 많다. 의상실이나 디자인룸의 실지에 익숙하지 않아 다이어그램식으로만 정리한 셈이다.

차를 탄다. 안내판의 로마, 부다페스트, 모스크바등의 글자를 이상한 나라에 온 듯한 느낌으로 본다. 시내길가에 그냥 연결되어 있는 보통 지하철역에서 천리만리 어느곳으로든지 갈 수 있다는 사실이 사실같지가 않다. 한 인간의 상상력의 어느 부분이 이렇게 철저히 왜곡될 수 있다니. 기차는 모든 좌석에 문이 달려있다. 바비칸 센타의 세익스피어극장 같다. 오래된 주철제의 역사를 지금도 고치고 있다. 최근에 고치고 덧 붙여진 포스트 모더니즘의 플랫폼은 신선하고 밝다.

철길 연변의 집들은 속도속에 놓여진 어디서나 비슷한 건물들이다. L군의 집은 기차역에서 15분가량 산으로 들어간다. 산길이 녹음에 젖었다. 산림속같은 길은 그러나 곧 집집들이 들어선 조그만 마을로 이어진다. 띠엄 띠엄 집들이 서 있다. 안으로 들어서면서 펼쳐지는 아랫정원과 넓은 숲들은 전혀다른 한 세계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딱 떨어진 곳의 또한 분위기는 자신속에 단계적으로 침잠되어가는 회화적 모습을 보이는 듯 하다. 목조집 특유의 밝음이었다. 서울서 10여년 떨어져사는 가족들 한가운데 앉아 모처럼의 서울식사를 즐긴다. 먹고 마시고 취해서 다들 이야기하는 가운데 소파에서 두시간을 잤다. 밤12시가 되어서 호텔로 돌아온다. 호텔로 오는 자동차길은 기차길과는 또 다른 정경이다. 마을 가운데를 차가달린다. 숲이있다가 마을이 나타나고 다시 숲이 나타나면서 런던으로 향한다. 줄을선 삼층 집들이 길에 나란하게 든든한 무게를 하고 서있다. 단순한 형식속의 유머러스한 변조들이 마을마다의 독특한 분위기를 이루고있다.

툼 매카서를 만난다. 잠시만이었던것 같은데 벌써 석달이다. 도면을 보고 여러가지 이야기를 한다. 거의 완벽 하리라고 생각하였는데 문제가 아직 또 있다. 스테이지 도아의 위치와 기능, 소극장의 장치 반입, 조명 형식등에 아직 허술한 구석이 많다. 의상실이나 디자인룸의 실지에 익숙하지 않아 다이어그램식으로만 정리한 셈이다. 객석이나 무대는 이제 어느정도 되어 있으나 아직 뒷무대 형식은 디테일이 부족하고 조명, 음향등의 기술정보가 아직없어 평면의 윤곽이 실제적이지 못하다. 주무대와 옆무대및 뒷무대간의 연결장치도 아직문제다. 톼에게 부탁해서 연습실, 의상실, 디자인 실등을 다시 본다. 마침 연습실에서는 저녁공연을 위한 리허설이 한창이다. 무대의 부분을 일부 만들어놓고 연출진이 죽 둘러 앉은 가운데 피아노 반주로 마치 실연같이 진행한다. 중간중간 중단시키고 소리지르고 신경질 내는 연출자를 본다. 무대위에 서는 사람, 뒤에서 일하는 사람, 그들을 움직이는 사람, 이것을 보는 사람—연극이나 오페라는 마치 인생의 축도같다. 의상실은 염색공장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여기저기서 염색에 바쁘다. 역시 이곳도 참고가 많이 필요하다. 디자인실은 모형실 같다. 여러 디자인어들이 그리고 만들고 있다. 최종의 것은 실지의 무대를 1/50정도로 만든 모형속에 모형으로 만든다. 색채와 디테일까지 다 만든다. 현장에서의 작업은 거의 확대만 하면 될정도까지 일한다. 프로세니엄 뒤의 복잡한 밑무대와 윗무대까지 다 만들어져 있다. 소규모 실연이 디자인실에서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만들어진 무대는 무대에 올려지고 비평되고 수정되면서 모델과 장면 참고에 수장된다. 디자인실의 참고는 발사로 만들어

진 모델과 도면으로 가득차있다.

이태리안 식당에서 오리를 시켜놓고 곤육을 치렀다. 외국여행중 잘못 주문한 식사를 여럿 앞에서 먹어야 되는 일은 한마디로 난감 그 자체다. 식사에 초대 한 로빈·테이튼은 로열오페라하우스의 건설본부장이다. 극장은 처음이지만 프로그램, 건설, 재정, 경영, 기술의 모든 관련부분을 협동조정시키는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한다. 내일 새로운 코벤트기든의 건설에 관한 여러자료를 얻기로 한다. 오후에는 톼과 앞으로 일주일간 작업할 계획을 세운다. 홍콩·아트·스쿨을 설계한 피터·앤지와와 로열·오페라하우스의 무대, 조명, 음향 담당기술자들을 하루에 한명씩, 만나고 플리머스의 소극장은 주말에 보도록 한다. 와서 이렇게 일하면서 느끼는 일은 아직도 한참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다. 일이 다 끝나고 AA스쿨을 견학한다. 그 유명한 학교가 베드포드공원 주위의 연립주택 일부를 쓰고 있을 뿐이다. 좋은 프로그램과 좋은 교수와학생 그것이 그들을 그렇게 영향력있게 한 것이다. 지하층의 책방은 아마 쓸만한 최근의 건축책은 다 모은것같다. 일층에는 항상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복도에서 피터·룩이 학생들과 토론하는 것이 보인다. 밤에는 피터-아이첸만의 강의가 있다. 약간 촌스러운 기분이 있었지만 33년이나 공연중인 쥐덜을 보러간다. 세시간전인데 도대체 표가 석장 남았다. 33년씩 한 공연을 계속하다니 그러나 과연 오래갈만하기는 하다. 무대도 훌륭하고 배우도 잘한다. 잘 아는 줄거리인데도 긴장감이 있다. 어퍼-스쿨의 객석은 많이 불편하지만 정작 연극이 시작되면서는 그런 느낌이 없을 만큼 시각이나 음향은 훌륭하다.

(다음호에 계속)